

10 인터뷰-이주원(우주과학 2009) 동문

“우주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수단” 늘 직진하지 않아도 괜찮아

김동희 기자 kdh0626@khu.ac.kr
공예진 기자 yejin514@khu.ac.kr

청춘들은 자신만의 길 위에서 한 발 내딛기를 주저한다. 어릴 적부터 꿈꿨던 본인의 모습과 달라진 현재의 모습에 좌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작가, 강연자, 번역가, 라디오 진행자, 농부 등 독자적인 ‘우주 커뮤니케이터’은 하늘을 꾸려가고 있는 이주원(우주과학 2009) 동문은 특정 직업에 국한되지 않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천문학을 향유하고 있다. 이 동문은 지난해 11월, 국제캠 천문대 공개 관측회 강연자로 지역 주민과 호흡하기도 했다. 어렸을 적부터 꿈꿨던 ‘학자’의 모습은 아니지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청춘들에게 보여주는 이 동문의 길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우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인간이 우주를 닮았기 때문

누군가는 ‘천문학’을 떠올리며 우주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수단이 자미지의 세계를 탐미하는 학문 등을 연상하곤 한다. 별 보기를 좋아하는 소녀였던 이 동문은 이와 비슷한 낭만을 꿈꾸며 우주과학과에서 천문학과와의 연을 시작했다. 다만 ‘낭만’은 그것의 의미대로 현실과 분리된 이상일 뿐이었다. 이 동문이 마주한 학문으로서의 천문학은 ‘현실’ 그 자체였다. 그를 기다리는 것은 망원경 속에 수 놓인 밤하늘 대신 수학 기호들과 코드 언어들이었다. “이게 천문학인가?” 이 동문은 우주를 향한 순수한 설렘과 학문으로서의 우주 사이에서 방황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에게도 2학년 때가 가장 큰 갈림길인 것 같아요. 이때 다른 선택을 많이들 하고 그랬죠.”

어릴 적부터 학자가 꿈이었기에 대학원에 진학했지만 다시 한번 천문학의 ‘현실’과 마주했다. 하지만 이 동문은 천문학 속에서 사람과 닮은 점을 찾을 수 있음에 즐거움을 느꼈다고 한다. 기억 속 어느 교수님은 우주가 사람과 굉장히 동떨어져 있고 별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 했다. 그러나 이 동문은 “우주를 배우면 배우수록 사람의 인생이나 사회와 닮아있다고 느꼈어요. 어떤 성단이 만물처럼 구성돼 있거나, 은하들도 약육강식에 따라 다른



이 동문은 지난해 우리학교 천문대 및 우주과학과가 주관한 공개관측회에서 ‘별과 별자리’를 주제로 강단에 섰다. (사진=이주원 동문 제공)

주변의 녀석들을 흡수해서 결국에 하나만 살아남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주는 되게 아름다운 공간 같지만 무시무시한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우주과학으로 지낸 이 동문이 생각하는 우주는 인간과 매우 닮은 존재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 우리 인간 역시 우주의 물질로 만들어진 우주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주의 법칙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거죠.”라며 우주가 인간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우주를 닮았기 때문에 천문학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얻은 즐거움을 원동력으로 대학원 생활을 다잡았지만 박사 학



TBN 제주교통방송 '달리는 라디오'에서 <별해는 밤> 코너를 진행하는 이 동문의 모습이다. (사진=이주원 동문 제공)

위를 목전에 두고 5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정리했다. 어느 날 초등학교 때부터 쓴 자기소개서를 보게 됐을 때, 오랜 장래 희망이라 믿었던 학자라는 꿈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전했다. 비로소 대학원을 그만둬야겠다는 다짐은 더욱 확고해졌다. “내가 선택한 인생이 아니라 남이 선택한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어른들이 등 떠민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게 됐어요.”

이상과 현실에서 방황하던 청춘 그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들’

이 동문은 대학원을 그만둔 것을 인생의 ‘터닝포인트’라 표현했다. 지금까지 잘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벌였다. 대학원을 그만둔 후 출간한 책 『혼자에 익숙해지는 중입니다』 역시 독립 출판이라는 버킷리스트에서 시작된 일이었다. 공교롭게도

책을 읽은 출판사 대표가 이 동문이 천문학 전공임을 알게 된 후 천문학 관련 책 집필을 권유했다. 그렇게 두 번째 책인 『별자리들』이 세상 밖으로 나왔다. 우연인 듯 필연처럼 두 권의 책 출간 이후 천문과 관련된 강연, 수업 등 제의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재밌기도 했지만 고민되는 부분도 있었다. “강연에서 뭔가를 준비해 가면 너무 쉬워서 실망하시는 분도 있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전달하려는 내용의 수준을 누구에게 맞출 것이냐는 저도 여전히 고민 중인 지점이에요.”

지난해 4월부터는 고향인 제주도로 돌아온 후 ‘초보 농부’로서의 삶도 시작했다. ‘농사’라는 행위로 인해 발전된 학문이 천문학이기에 이 일마저도 우주와 떼어 내려야 할 수 없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너무 평화로운 나머지 삶이 손에서 떨어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되게 잘해야 해요. 이건 제주도뿐만 아니라 프리랜서의 삶

이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에 내려오면 천문학 관련 일을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 동문은 라디오에서 천문학 코너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 밤하늘에서 별 보기 등, 제주도에서 하고 싶은 일은 아직 너무나 많다.

삶은 우주의 ‘빅뱅’처럼 확장해 가는 것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공부하다 그만뒀던 대학원에서의 삶도 결코 시간 낭비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무엇보다 큰 발판이 됐다. “교수님께서는 꼼꼼함과 더불어 제삼자의 시각을 갖춰 자신과 타인을 바라볼 것을 항상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의 가르침은 추후 글을 쓰고 다른 일을 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해 줬다.

대학원 중퇴, 책 쓰기, 각종 강연, 농사까지 다양한 경험을 겪어본 이 동문이지만 새로운 도전에 당연히 겁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조언한다. “저도 대학생 땀 사람도 잘 못 사귀고 기숙사 안에만 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조금 씩씩해지더라고요. 30대에 들어서면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알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져요.” 무엇이든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니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하는 것에 주저함이 많이 사라졌다.

‘나아갈 진(進)’, ‘길 로(路)’.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의미하는 ‘진로(進路)’는 장래 희망이나 삶의 방향으로 통용된다. 각자의 앞에 놓인 길은 그 길이도 모양도 제각각이다. 곧을 수도, 여러 갈래이거나 굽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중요한 건 길의 형태가 아닌, 헤쳐 나가는 방식이라는 점을 자주 간과한다. 그가 말하는 ‘경험의 중요성’ 또한 이의 연장선에 있다. 이 동문은 후배들을 비롯한 청춘들에게 아무래도 인생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금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니 항상 진심을 다하다 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우주가 빅뱅을 통해 확장해 나가듯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확장해 나가길 바라요.”라고 말한다.

“마지막 꿈은 재밌고 맛있는 할머니가 되는 것이어서, 그때까지 이것저것 많이 해보면서 살 거예요.” ‘우주 커뮤니케이터’ 이 동문은 꿈을 이룰 때까지 우주와 인간을 연결하기 위해 여전히 경험이라는 우주를 헤엄치고 있다.